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7, 히브리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히브리서 27번 강의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발표입니다.

그 중 하나는 금요일입니다. 시험이 있는데, 세 번째 시험은 티투스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디도서를 통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째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3번이 금요일에 다가옵니다. 둘째, 현재는 수요일 저녁, 목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이 있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되고 시험은 금요일에 옵니다. 누군가 손을 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 예. 예. 좋은. 괜찮은.

괜찮은. 기도로 열어갑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특히 당신의 살아 계신 말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그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창조한 세상과 당신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당신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알 책임을 주신 다양한 지식 분야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실제로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다른 종류의 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1, 2서로 구성된 신약의 한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 또는 가톨릭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카톨릭이나 일반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편지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청중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서신의 서문인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바울이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몇 가지 경우에 특정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부 바울 서신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을 읽어 보면 그 편지들이 꽤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는 적어도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편지 자체나 작품 자체에 특정 청중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같이 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묵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아마도 그것이 가장 적합한 분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흔히 일반서신 또는 가톨릭서신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내용은 적어도 대부분의 특정 장소보다는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더 광범위하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와 같은 책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매우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 자체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 중 하나는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편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히브리서에게 보낸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편지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품을 읽는 우리의 기대가 좌절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지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들과 우리가 보게 될 편지들 중 일부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알려줍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나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나 그와 같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알아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복음서에서와 거의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어도 1세기에는 누가 그것을 썼는지를 표시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때로는 편지처럼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든 잃어버렸거나 중단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소 상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교회는 역사상 여러 가지 가능한 제안을 실제로 제시해 왔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2세기 초기 교회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통된 합의는 아마도 바울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그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히브리서 누가복음을 썼을 수도 있는 1세기의 두 명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인 바나바가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최근에 출판된 책인 단행본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누가복음과 히브리서 사이에 언어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크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나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한 오리겐보다 훨씬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가 텍스트에 자신을 드러내는 한 목시 저자가 누구였을지, 저자가 생각한 것, 아마도 그의 배경과 출처에 대해 꽤 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고 저자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려고 누군가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 오리겐의 결론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히브리서에 편지를 썼는지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편지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은 바울이 자신의 독자층을 식별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독자층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식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초기 교회 전통에서는 로마 도시에 히브리인이 있다고 식별하거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룹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려면 히브리서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인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히브리서나 히브리서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본은 아닙니다. 저자가 누구든 앉아서 히브리서를 쓸 때, 그는 히브리서 맨 뒷줄에 글을 쓰고 나서 편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기 교회에 의해 추가된 명칭이며, 일부에서는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히브리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부터 내용과 주요 청중이 무엇인지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독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라는 칭호를 붙인 이유는 몇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가 누구이든 그의 독자들이 구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제사 제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책을 히브리서로 분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읽으면 그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의 전체 주장은 구약의 유대 희생 제도, 심지어 유대 성막과 성전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독자가 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작가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약성서이거나 구약성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 독자층임에 틀림없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기독교 유대인인가? 그들은 일종의 거짓 교사들입니까? 그게 문제인가요? 그들은 기독교 유대인인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인가? 이 독자들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또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지배적인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묘사되는 주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늘 교과서에서 읽은 퀴즈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묘사하는 주된 방법은 구약의 성취에 있어서 대제사장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즉 저자는 시편 110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시편 110편이 히브리서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110편의 저자는 메시아 왕과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곳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 텍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른 시편들과 함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를 우주의 주인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의 처음 몇 구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홀 곧 왕의 권능을 시온에서 보내시나이다 적들 가운데서 통치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산으로 군대를 이끄는 날에 당신의 백성은 기꺼이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당신의 젊음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셨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왕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시편 110편은 메시아적 인물이자 왕족이지만 지금은 왕이신 분에 대한 그림을 예상하고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신부님, 죄송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 왕 같은 인물은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히브리서 독자들이 구약성서의 모든 배경과 그들이 구약성서와 희생 제도의 복잡한 부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정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요 청중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증명하고 싶지만 아마도 당신의 노트에 있는 인용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FF Bruce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주석에서 그는 독자들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를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유대인 기독교인 그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일종의 2세대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예수의 목격 증인이었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종한 이후로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공개적인 학대와 투옥, 재산 약탈을 견뎌야 했지만 아직 믿음을 위해 죽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으로써, 특히 박해의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인 발전은 정지되거나 다소 중단되거나 둔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영적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그들이 떠났던 무대로 돌아가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로마법의 보호를 누렸던 종교, 즉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꺼렸고, 기독교 방식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의 위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있거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복지에 대한 목회적 관심을 느끼는 저자는 그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지만, 계속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히브리서의 주요 메시지를

훌륭하게 요약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줄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분께 등을 돌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조상 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전환 단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독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자의 목적은 이 독자들, 특히 유대인이거나 유대인 배경 출신이 누구든 간에 그들이 방향을 바꾸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지만 얻을 것은 무엇이든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고통과 경험을 겪게 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받아들이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했듯이, 히브리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학인지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떤 면에서 서신이나 편지를 읽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권면의 내용과 명령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일련의 엄격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그러나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가장 가까운 단서는 저자가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13장과 22절에 있습니다.

즉, 이것을 분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것이 편지처럼 전달되는 서면 형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나 강론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이제는 글로 된 형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편지처럼 끝나고 아마도 발송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설교를 적어서 끝맺는 편지를 붙여서 보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해야 하는 방식일 것이며 아마도 히브리서가 편지처럼 시작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설교하지만 글쓰기에 전념하고, 서면 형식으로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저자의 목적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그들이 아마도 유대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채워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렸으며 어떤 형태의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와 함께 그들이 어떤 형태의 유대교에 속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그에 응답했으며 지금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직 유대 회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지만 새로 설립된 이 교회와 이 새로운 교회를 모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상한 종교. 그리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아마도 유대교를 떠났다가 지금은 분명히 기독교라는 새로 발견된 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FF Bruce의 인용문에서 읽은 것처럼, 유대교의 경우처럼 로마 통치 하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교입니다. 유대교 아래서 성장하고 생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 발견한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고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교회와 연합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떠나는 일로 인해 친구와 가족, 회당으로부터도 박해와 배척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요인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감각에 호소하는 종교를 떠났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종교,

제사 중심, 절기, 절기, 유월절 식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께 예배하려고 그 종교를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금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마도 유대교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적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와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요약하자면, 그들이 이제 이 새로운 종교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유형적이고 실질적인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직면했을 수 있는 박해와 배척의 일부와 함께. 눈에 보이거나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 독자 중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돌아서서 자신의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쓰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독자들이 실제로 기독교인이었나요, 아니면 아니었나요? 내 생각에 저자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뒤로 물러나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으면, 만일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면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이전 종교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대신에 힘써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얻을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바탕으로 작업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해 기독교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들이 아직 완전히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그 일이 필요하다고 의심합니다. 그들이 돌아서거나 노출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부하지 않도록 밀어붙이세요. 좋아요, 히브리서를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개요를 설명하고, 히브리서의 주요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더 구조적입니다. 즉, 히브리서를 읽을 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저자가 강해와 권고 사이를 오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지시적 명령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의 거의 절반을 직설법에 할애하고 마지막에는 명령형에 할애하는 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 앞뒤로 전환합니다. 강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강해 부분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어떤 것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백성들이 땅에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안식, 성막과 성전, 제물들, 짐승의 제물들에 비유되었습니다. , 그는 옛 언약과 비교됩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두드러진 특징들과 예수를 비교하여 예수가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저자가 이를 입증하면 그는 권고로 전환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훨씬 더 우월한 것이 바로 당신 앞에 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조상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왜 돌아가고 싶나요? 뒤로 물러가면 다 잃을 것이요, 앞으로 나아가서 더 높으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다 얻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뛰어난 계시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읽은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작가가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열성적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거의 시소 위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에게 팁을 주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길로 가는 대신에, 글자를 나누어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삼중이다. 노트 50페이지 상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네 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참된 계시, 하나님의 참된 사자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넓은 부분에서 예수는 우월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파트너십, 즉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개요를 보면 여러분 중 눈이 예리한 학생이라면 장과 참조 절이 서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개요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섹션이 이전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같은 전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다음 내용에 대한 소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중 구분에 관한 장과 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섹션 중 일부가 결론이자 다음 섹션에 대한 소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일 그가 그들이 옛 언약과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득하려면, 그들이 의지할 훨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새 언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구약성경을 다소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말은, 그가 예수께서 우월하시며 우리에게는 우월한 제사장과 우월한 언약이 있다고 말할 때 구약의 희생은 결코 구원할 수 없고 온전함을 가져올 수 없지만 예수님과 새 언약은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거의 반유대주의자이거나 반구약주의자였으며, 신약성서를 우월한 것으로 보고, 구약과 구약성을 그의 독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렇다면 저자가 구약에서 무엇을 잘못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 아래 이스라엘과 맺으신 합의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율법에 대한 순종은 모두 구약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은 언젠가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새로운 방식, 옛 언약과 구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 그런데 옛 언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자는 왜 독자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새 언약이 그토록 우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옛 언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즉, 나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자가 옛 언약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가져서는 안 될 옛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새 언약인 플랜 B로 가야 했습니다. 즉, 옛 언약은 나쁘거나 더 나쁜 것을 의미하고,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좋고 선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옛 언약의 주된 결점은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문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결코 완전히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구약의 문제는 저자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죄를 처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제시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주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자들이 궁극적으로 죄를 처리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옛 언약 하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것에 등을 돌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옛 언약에 대해 어떤 문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가리키고 기대했던 것이 이제 새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이르렀는데, 구약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이르렀는데 왜 그들은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작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열등하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단지 완전함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함은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새 언약이 이제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죄를 처리했으며,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옛 언약 시스템. 사실, 저자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쁘거나 이류이거나 열등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마침내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것을 가리키고 기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도래했는데 왜 그들은 다른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까?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안에서 훨씬 더 큰 방법으로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까요? 좋은 질문. 좋아요.

다른 질문? 그것은 3장부터 12장까지의 대부분, 즉 저자가 구약에 관해 행한 일의 대부분 뒤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여러분이 새 언약은 좋지 않고, 옛 언약은 쓸모 없고, 좋지 않고, 나쁘고, 결함이 있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요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신약과 관련된 옛 언약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내가 읽은 처음 두 구절에 다시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곧 성취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구원이 바로 구약과 구약이 지적하고 기대했던 것의 성취입니다. 이제 그것도 도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가족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구약이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무시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이 New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구약이 기대하던 성취의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의 독자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자가 이것을 주장하는 방식 중 하나,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점을 주장하는 방식 중 하나는 제가 역사적 주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자는 단지 그리스도가 성취라는 사실만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자체에서 돌아가서 논증한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로 돌아가서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 읽으면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지배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대제사장에 관해 읽어보면 어느 계열에 속해야 할까요? 즉,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구약성서에서 오늘 내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이었나요? 네, 아론의 후손이나 레위 지파에 속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면 운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최후의 제사장이 될 운명이었다면, 즉 이것이 궁극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제사장,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면 왜, 역사적으로, 왜 수년이 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을 예상하는 시편 110편이 있나요? 방금 시편 10편에서 읽은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맹세하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그게 왜 거기 들어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구약의 제사장이 전부였다면, 몇 년 후 시편 110편에서는 왜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또 다른 예로 저자는 휴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되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묘사한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윌슨, 힐데브란트, 필립스 교수와 함께 정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수업을 기억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어 그 땅에 정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자가 하는 일은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갈 필요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마지막 안식을 주었다면 그게 전부라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왜 시편 95편에서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직 휴식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이 성취였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왜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합니다. 95편과 같은 시편은 아직 휴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입니다.

다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그 언약이 궁극적인 최종 언약이라면, 몇 년 후 예레미야 31장은 왜 또 다른 언약을 기대합니까? 작가님 뭐하시는지 보이시나요? 그는 구약 자체가 구약이 구약의 일시적인 성격을 지적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구약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땅에 있는 제사장과 안식인과 언약, 옛 언약과 더불어 구약과 함께 성막과 성전과 제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 자체가 시편 110편, 시편 95편, 예레미야서 31장과 같은 본문에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자는 구약성서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구약성경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이르렀는데 왜 그들은 이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저는 특히 첫 번째 사람인 신부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드가 와서 사해 두루마리와 두 메시아, 즉 제사장 메시아와 왕 메시아가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이것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메시아, 왕은 어떤 계통으로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계열에서. 그런데 우리는 신부가 어떤 줄에 온다고 말했습니까? 리바이라인.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메시아가 있고 동시에 제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히 별개의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레위의 계열에서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일은 흥미롭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그 해결책을 시편 110편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레위 계통을 따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0편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시고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 이 메시아인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또 다른 반차의 제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는 제사장이지만 레위 계통의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다른 반차,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계의 메시아이실 수 있고, 그래도 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 계통을 거치지 않고도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노선을 통해 온다.

그는 시편 110편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반차의 제사장에 속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그에 대해, 그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죽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편은 이것을 포착하고 또 다른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의 반차가 있고, 예수님도 그 반차에 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레위 계통을 거치지 않고도 여전히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서 찾은 또 다른 반차, 즉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은 참으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비록 레위의 계열에 속하지는 않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이자 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말할 때 유대 기독교인이 참여하고 그 일부가 되어야 하는 예배를 비교하고 싶을 때입니다. 물질적인 성전이나 하늘의 성전에 비유하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지 않고 구약의 성막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자는 지성소와 드리는 제물, 성소, 진설병 상, 언약궤에 관해 말할 때마다 성전에 속한 모든 것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언급한 것이 성전이 아니라 구약의 성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 즉 성전이 파괴된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을 애굽기 전체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결국 그들을 인도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세웠는데, 불기둥이 움직일 때나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도 같이 움직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세웠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항상 그것에 호소하는데, 그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와 비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것.

수요일에는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한 이유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히브리서 27번 강의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